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가 무발화 자폐성 아동의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효과

강 은 희*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박 선 희**

대구한의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요 약》

본 연구는 무발화 자폐성 아동들의 의사소통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를 실시한 연구로서, 3명의 무발화 자폐성 아동에게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과 구어사용 변화를 통해 알아보았다. 중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간 중다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의 감소와 구어사용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본 중재가 무발화 자폐성 아동들의 의사소통 발달에 효과적인 중재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화용적 의사소통, 무발화 자폐성 아동,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 구어

1. 서론

자폐의 발생율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HMP-98-M-1-1081)에 따르면 자폐성 아동 출현율은 인구 만 명당 9.2명 정도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출현율 역시 일본의 13.0명이나 캐나다의 10.1명, 프랑스 10.8명, 스웨덴 6.6명 등과 비교하였을 때 과거의 일반적 추정치 5%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홍강의, 1999) 이러한 지적은 자폐성 문제 해결과 관련된 중재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자폐성 장애의 주된 특징인 의사소통 결함에 대한 중재 연구들은 시급한 연구 과제임을 제안하고 있다. 자폐 발생의 증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자폐 장애의 속성과 명확한 진단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ssun@dhu.ac.kr)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자폐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및 치료적 접근이 더욱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DSM-IV-TR(2000)에서 자폐 증상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 장애와 의사소통의 질적 장애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자폐 아동들의 발달 특징 중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의 질적 결함에 있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려는 동기, 언어를 사회적 상호작용 수단으로 사용하는 능력, 공동관심 형성 수단으로 다양하게 확대하는 데 결함이 있으며, 화용적 측면인 요구하기와 같은 초기 의사소통적 기능인 도구적, 통제적 기능들에서도 제한을 보인다(강수균 등, 2005). 또한 초기 의사소통 기능들이 가능하더라도 사회적 맥락에서의 자신과 사물, 그리고 다른 아동을 관계 지어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혹은 주의를 끌기 위한 의사소통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폐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언어나 의사소통의 형태 그 자체의 습득보다 언어의 적절한 사용 상황을 통한 기능성을 강조하는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의 유용성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언어이전기 자폐성 아동의 의사소통 중재는 화용적 분석을 통하여 의사소통 기능에 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을 중재함으로써 아동의 실생활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 아동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는 실제 상황적 문맥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사용되는 말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의도와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영태, 1997). 의사소통 중재에 있어 구문적인 형식이나 어휘에 치중하는 접근법이 자폐성 아동들의 실제 의사소통에 사용으로의 일반화에 어려움을 나타냄에 따라 화용적 이론들을 기초로 한 의사소통 중재들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는 임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하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여러 기법들과의 접목과 활용이 계발되고 있다.

무발화 자폐성 아동들은 의사소통 능력의 심한 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 의도가 무엇인지, 반응의 주체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몇몇 연구자들은 이 아동들의 의사소통을 자극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촉진전략들을 사용하였다(Bondy & Frost, 2001; Wetherby & Prizant, 1996). 또한 의사소통 상대자 이외에 다른 또래, 부모, 또는 교사가 아동의 그림자처럼 지원할 수 있는 촉진자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이정미, 2005). 이와 같이 복잡한 자폐성 아동들의 의사소통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촉진 전략적 중재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폐성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조적인 환경과 촉진적인 전략을 활용한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를 제시하였다. 본 중재를 무발화 자폐성 아동들에게 적용하고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과 구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본 중재의 유용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를 중심으로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가 무발화 자폐성 아동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을 감소시키는가?

둘째,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가 무발화 자폐성 아동의 구어를 증가시키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장애 진단 기관에서 자폐성 장애로 진단된 아동으로 CARS에서 40점 이상이며, 언어연령이 10~17개월의 아동으로 부모와 교사의 보고에 의하여, 다른 사람과의 자발적인 의사소통 시도가 제한적이며, 의사소통적 기능이 있더라도 그 사용 빈도가 낮고,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는 4~6세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아동들의 특성을 <표 1>에서 제시하였다.

<표 1> 대상아동 특성

대상 아동	성별	연령(세)	사회성 ¹⁾	자폐성 ²⁾ (점)	수용언어 연령(개월) ³⁾	표현언어 연령(개월) ³⁾
A	남	6;0	41	40	23	10
B	남	5;3	43	40	17	15
C	남	4;7	50	44	12	8

1) 사회성숙도(김승국·김옥기, 1995)에 의함

2)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김태련·박량규, 1996)에 의함

3) 영·유아언어발달검사(김영태 외, 2003)에 의함

1) 아동 A

부모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으로 어머니는 임신 중에 앓은 질병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 어머니의 보고에 의하면 발달 초기에는 웅알이도 많았고 엄마와의 눈 맞춤에 이상이 없었으나, 동작모방과 언어에 대한 모방은 없었다. 또한 신체 발달은 정상적이며, 건강 상태 등은 좋은 편이었다고 하였다.

언어발달에 대한 보고에서 아동은 웅알이가 활발하고 돌 경에 “엄마”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현재 아동의 언어발달은 주로 자발적 단어 사용은 제한적이지만, ‘주세요’를 “주-”로 발성할 수 있다. 모방에 의한 음절수에 따른 발성, 입모양을 따라 하려는 시도

들이 자주 보인다. 지시 따르기는 잘되는 편이고, 세 가지 연속적 지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집에서 옆집 할머니 댁까지 심부름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영·유아언어발달검사(SELSI)에서 수용언어 연령은 23개월, 표현언어 연령은 10개월로 지체를 보이고 있다. 수용언어 측면에서 일상적인 형용사 이해하기, 지시에 따라 사물이 일부를 지적하기, 다섯 낱말 이상으로 된 긴 문장을 이해하기, 지시에 따라 다른 곳에 가서 한 번에 두 개의 사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표현언어 측면에서 억양이나 소리 크기를 달리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제스처를 동반한 소리를 내어 원하는 물건을 획득하였다. 의사소통은 몸짓과 손짓, 얼굴표정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정확하지 않더라도 2음절 이상의 소리를 듣고 음절수대로 모방하기, 통용되는 몇 가지 몸짓언어를 사용하기,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거나 행동하기가 가능하였다.

행동발달에서 아동은 착석이 어렵고 주의가 산만하며, 뛰는 행동을 자주 보였다. 또한 끈적거리고 미끈거리는 감촉이 있는 풀, 비눗방울 액체 등을 손으로 만지고 비비기를 좋아하며 찰흙 등을 찌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화-자폐 아동 행동발달 평가 도구(E-CLAC)에서 발달 특성으로는 옷 입고 벗기, 위생, 언어이해, 발음, 변별능력, 그림그리기 등의 표현활동, 행동의 모방, 계획성의 지체가 두드러지며 병리적 특징으로서 안전의식의 결여, 또래들과의 놀이, 언어표현, 의사소통 능력, 집중성, 과잉운동성의 지체 및 일탈 특징이 나타났다.

2) 아동 B

부모와 형과 같이 살고 있는 아동으로 출생 전, 출생 시의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하였다. 출생 후 아동은 바깥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심하게 울어서 돌 전 까지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바깥 활동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또한 우유통을 혼자 빨면서 구석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현재 건강상태는 좋다고 보고되었다.

언어발달은 10개월경에 웅얼이를 했으며, 돌 전후로 “아빠”라고 말했는데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3세경에 상황에 맞는 동사(아야(아픔), 가자, 어부마)를 제한적이고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 의사소통 특징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이 제한적이며 요구하기는 사물을 쳐다보거나, 신체적 도움을 통해 나타내며, 몇 가지 사물에 대해 “이게 뭐야?”라고 질문하였을 때 단어의 일부를 발성하거나, 지적하기를 통해 질문에 반응할 수 있다. 정보 제공하기는 얼굴표정으로 수동적으로 나타내며 정보 찾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영·유아언어발달검사(SELSI)에서는 수용언어 연령은 17개월, 표현언어 연령은 15개월로 언어발달에서 지체를 보이고 있다. 수용언어 측면에서 아동은 제스처를 하면서 간단한 말로 요구하는 동사를 몇 가지 이해하기, “안 돼” 이외의 부정적 명령에 하려던 행동을 멈추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기, “○○ 어디 있니?”에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기, 간단한 지시따르기, 그림과 실제 사물을 짝짓기 등이 가능하였다. 표현언어 측면에서 아동은 자발적으로 몇몇 단어를 말하기, 새로운 낱말과 비슷한

발음으로 모방하기, 그림을 보면서 “이거 뭐야?”라고 물었을 때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사물을 말할 수 있었다.

신체발달은 18개월경에 걷기를 시작하였으며, 소변은 3세경, 대변은 4세경에 가려 다소 늦은 발달을 보였다. 걷기, 뛰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은 바르게 행동하나 공 주고 받기, 자전거 타기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사회성 및 행동특징으로는 눈 맞춤이 안 되며, 신체적 접촉을 좋아하여 친한 성인과는 얼굴을 만지거나 비비는 행동을 보였다. 화가 나면 친구를 꼬집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과다행동을 보이며 깡충깡충 뛰기, 높은데 오르기, 까치발로 걷기, 책상 위에 앉았기, 혼자 웃기 등 착석과 주의집중이 짧은 특징을 보였다.

3) 아동 C

아동은 부모와 누나, 형과 함께 살고 있으며, 출생 전, 출생 시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조용하고 요구가 적은 순한 아이였다고 하였다. 신체발달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네타기를 싫어했으나 현재는 그네를 탈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고, 편식이 심한 편이지만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하였다.

언어발달은 용알이가 있었으나 점차 감소하였으며, 16개월경에 “까까”(초코파이를 가리키며)라고 말한 후 자발적인 발성이 없었다. 요구하기 할 때, “부-”하며 ‘주세요’를 표현하고, 가끔 몸짓인 ‘손 내밀기’를 사용하였다. 단어 모방은 입모양을 흉내 낼 수 있으나 발성이 적절하지는 않다. 영·유아언어발달검사(SELSI)에서는 수용언어 연령은 12개월, 표현언어 연령은 8개월로 언어발달에서 지체를 보이고 있다. 수용언어 측면에서 아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 모방하기, “OO 어디 있니?”에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기, 제스처 없이 말로만 하는 간단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 등을 할 수 있었다. 표현언어 측면에서 아동은 낱말처럼 들리는 음절 사용하기, 억양이나 소리 크기를 달리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같은 음을 반복하여 소리내기 등을 할 수 있었다.

사회성 및 행동 발달은 눈 맞춤이 없고, 소리에 민감해서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며 아빠, 엄마, 누나를 좋아하여 같이 놀아주면 좋아하였다. 주의력이 산만하고 상동행동(손 쳐다보기), 그리고 일정한 형태로 블록 늘어놓기, 그리기 등의 행동 특징을 보였다.

2. 평가도구

1) 의사소통 형태 평가

의사소통 기능을 나타낸 아동의 행동을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과 구어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의사소통 행동으로는 자해, 공격성, 짜증내기, 울기로, 구어는 한 단어, 두 단어 이상의 구어사용으로 구분하였고, 구어 평가에서 반향어와 무의미한 중얼거림은 제외되었다. 두 가지 의사소통 행동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는 보다 발전된 의사소통 형

태로 기록하였다.

3. 연구 설계 및 절차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가 무발화 자폐성 아동의 의사소통 표현 형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간 중다기초선 설계(multiple baseline across subjects design)를 사용하였다. 중재 이전의 기초선 평가를 실시하고 치료 중 4회기마다 중재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도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2) 연구 절차

(1) 기초선 단계

아동에게 구조화된 놀이 상황을 제공하고 아동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이 유발될 수 있도록 Wetherby와 Prizant(1996)가 제시한 초기 의사소통 촉진전략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의도에 따라 3회 이상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의 의사소통 상대자가 되어 아동의 의사소통 행동에 반응해 주었고, 아동이 놀이 영역을 이탈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이를 제지하였다. 기초선 평가는 각 회기 당 20분 동안 실시하였고, 모든 활동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였다. 평가회기 후 비디오 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과 구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2) 중재 단계

모든 중재 회기는 30분 동안 이루어지며 구조화된 놀이 활동 속에서 연구자(의사소통 상대자)와 촉진자가 함께 사진교환과 지적하기, 몸짓을 통한 목표 행동을 중재하였다. 각 중재 회기는 여섯 개의 주된 장난감(비눗방울, 블록, 찰흙, 소꿉놀이, 간식, 소리나는 자동차)과 아동의 선호에 따라 1~3개(그림책, 풍선, 실로폰)의 장난감 추가로 배치하였다. 의사소통 상대자는 자연스러운 놀이 활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세 가지 의사소통 의도(행동통제, 공동관심, 사회적 상호작용)로 나누고 다시 7개의 하위요소로 나누어 의사소통 기회는 7개의 초기 의사소통 의도에 따라 각각 최소 3회 이상 총 의사소통을 유발하도록 구조화하였다. 의사소통 상대자가 아동에게 제공한 22~39회의 의사소통 촉진전략을 사용하였다. 대상 아동들의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의 목표행동 및 방법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중재 평가는 치료 4회기마다 중재에 대한 아동의 의사소통 행동과 구어 사용을 기록하였다. 평가 과정은 기초선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표 2> 중재 목표 및 방법

화용적 의사소통	사물 요구하기	행동 요구하기	거부하기	언급하기	정보 제공하기	관심 끌기	인사하기
의사소통 목표행동	사진 교환	사물 내밀기	손 또는 고개 좌우로 흔들기	지적하기	지적하기	의사소통 상대자 신체 두드리기	고개 숙이기 또는 손 흔들기
구조화된 촉진 전략	아동이 좋아하는 사물을 보여 주거나 잠시 시범을 보인 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는다.	아동이 하기 어렵게 놀이의 부분을 조작하여 아동에게 제시한다(잠그기 등).	좋아하는 사물을 제거하거나, 싫어하는 사물을 준다.	사물을 가만히 쳐다본다.	두 가지 사진 카드를 제시하고 아동에게 “어느 것을 할래?” 선택하도록 한다.	좋아하는 사물로써 관심을 끈 후, 아동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일을 하는 척한다.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고개 숙여 인사한다.
촉진 전략	의사소통 촉진전략에 따라 의사소통을 유도하였을 때, 5초 동안 아동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목표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아동의 신체를 촉구하여 목표 의사소통 행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연구 장소 및 기간

본 연구는 통합어린이집 내 언어치료실에서 실시되었다. 연구 기간은 2006년 6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중재는 주 3회(각 30분) 실시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기초선과 중재 과정을 2대의 비디오카메라에 녹화하여, 아동의 의사소통 행동과 연구자의 발화는 모두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아동의 의사소통 중 동일한 대상 또는 행위를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지칭하거나 행동하는 경우는 한 번만 기록하였고, 사물이나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와 의미를 알 수 없는 의사소통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여 빈도수에서 제외하였다. 구어 사용 빈도는 총 의사소통 행동 수에 각 구어 사용 형태 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5. 관찰자간 신뢰도

관찰기록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를 포함한 2명의 1급 언어치료사가 녹화된 비디오 자료 중 무작위로 전체 평가의 20%에 해당하는 비디오테이프를 기초선, 중재 평가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의사소통 행동 분석에서 두 관찰자간의 신뢰

도는 92%로 나타났다.

6. 자료 처리

본 연구는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에 따른 대상 아동들의 의사소통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 아동들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과 구어사용에 대한 출현을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III. 결과

1.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 변화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가 대상 아동들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대상 아동의 기초선과 중재 평가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대상 아동들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 대한 중재 효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 아동은 기초선 평가에서 평균 10~15%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을 보였다. 아동은 요구하기 전에 사물을 직접 갖기 위해 뛰기, 책상 오르기 등의 행동이 자주 나타났다. 재요구시 일어나서 뛰어오르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중재 이후 점차 부적절한 행동이 감소하였으며 평가 4회기 이후에는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B 아동은 기초선 평가에서 20~57%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을 보였다. 아동은 요구하기 전에 사물을 직접 갖기 위해 뛰기, 책상 오르기, 짜증내기 등을 자주 나타내었다. 중재 이후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은 감소하였으며 평가 4회기에서 나타나지 않다가 평가 5, 6 회기에서는 4% 이하의 낮은 출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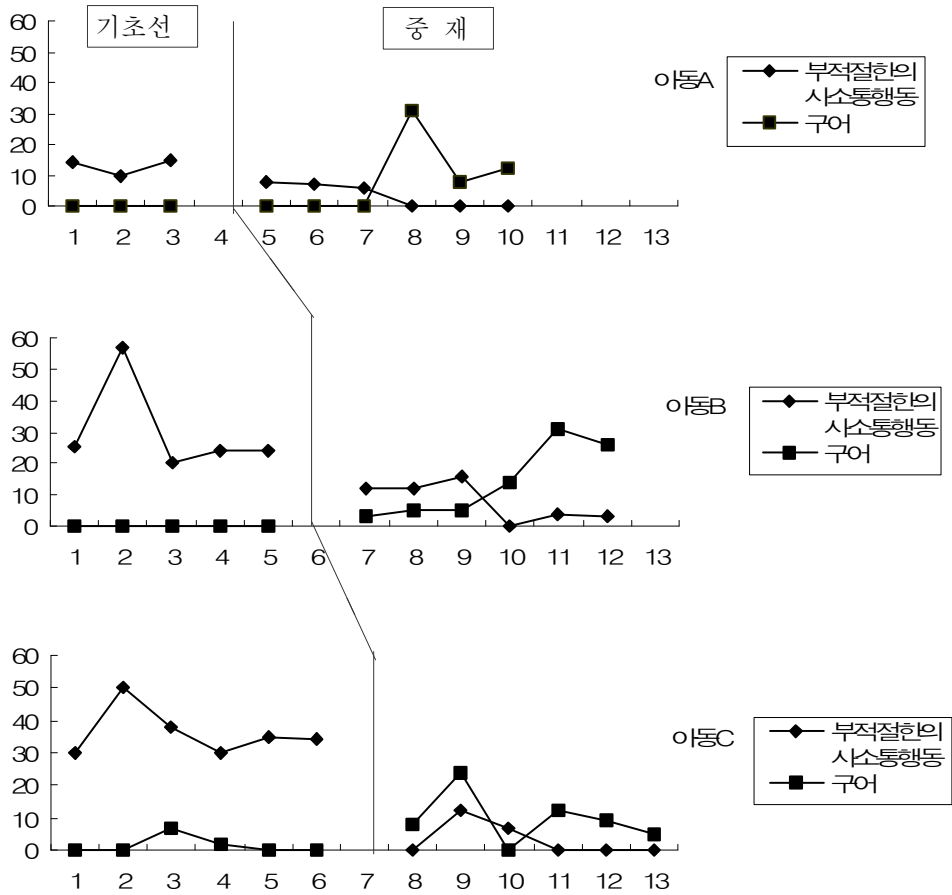
C 아동은 기초선 평가에서 30~50%의 높은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 출현율을 보였다. 아동은 사물이나 행동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때 짜증내기 행동을 자주 나타내었다. 중재 이후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은 감소하였으며 평가 4회기 이후에는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결과로써,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가 대상 아동들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을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2. 구어 변화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가 대상 아동들의 구어 사용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대상 아동의 기초선과 중재 평가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대상아동들의 구어 사용 대한 중재 효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중재에 따른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과 구어 사용 변화

A 아동은 기초선 평가에서 구어 사용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중재 이후 사물 요구하기 위해 사진교환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평가 8회기에서 자발적 의사소통이 증가하였으며 “안녕”, “하나”, “물”, “예”의 구어표현은 나타내어 중재 평가 중 1~2회 정도의 자발적 구어 사용에서 4회로 증가를 보여 그래프의 상승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제한된 전체 자발적 의사소통 중 나타난 구어의 비율의 변화로서 그래프의 상승을 나타내었다. 그 이후 다시 “과자”, “블록”의 요구에 제한된 구어 사용을 보였다.

B 아동은 기초선 평가에서 0%의 구어 사용률을 보였다. 중재 이후 사물요구하기를 위해 사진 교환과 몸짓 사용의 증가를 보였다. 구어의 사용은 평가 1회기에서 3%, 2회

기에서 5%로 점차 증가를 보였으며 평가 6회기에서는 31%, 7회기에서는 26%의 높은 구어사용률을 보였다. 아동은 주로 요구하기 상황에서 “줘”, “더”, “같이” 언급하기 상황에서 “고기”와 같은 구어를 사용하였다.

C 아동은 기초선 평가에서 평가회기 동안 의미 있는 구어의 사용을 보이지 않거나 1~2회의 “까까(과자)”를 말하였다. 중재 이후 구어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평가 8회기에서 8%, 9회기에서 24%의 구어 사용을 보였다. 이는 “줘”의 사용이 4회 증가함으로 인해 구어 비율이 증가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0회기에서는 평가회기 동안 전혀 구어를 보이지 않고 찰흙놀이만을 강하게 고집하였다. 평가 11회기에서 12%, 12회기에서 9%를 보였다. 아동은 요구하기 상황에서 “줘”, “더”, “주스”, “까까”, “엄마”의 좀 더 다양해진 구어를 사용을 보였다.

결과로써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의 적용으로 대상 아동들의 구어의 사용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 아동들이 의사소통 표현 형태로써 가지고 있었던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이 중재를 통해 감소하였음과 더불어 구어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무발화 자폐성 아동들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형태가 본 중재를 통해 적절한 의사소통 표현 형태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구어의 습득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VI.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를 통해 무발화 자폐성 아동들의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대상 아동들에게 나타난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과 구어 사용을 중심으로 중재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의 적용으로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이 모든 대상아동에게서 감소하였다.

둘째, 구조화된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의 적용으로 구어의 사용이 모든 대상아동에게서 증가하였다. 기초선 단계에서 구어 사용을 보이지 않았던 대상 아동들은 중재 이후 구어 의사소통을 나타내었다.

자폐성 아동들은 전통적인 의사소통 형태 습득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Mundy et al., 1994). 대상 자폐성 아동들 또한 요구하기, 거절하기, 인사하기의 의사소통 행동은 보여주었으나 지적하기와 보여주기의 비구두적 의사소통 기능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무발화의 자폐성 아동들의 의사소통은 비언어적 형태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자폐성 아동들의 구어습득의 어려움과 함께 언어

적 형태보다 비언어적 형태를 주로 사용하며 다양한 의사소통 의도를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형태로 표현한다는 Wetherby(198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효신(1999)은 무발화 자폐아동의 '가리키기' 중재를 통해 언어 이해와 표현 언어가 향상을 보고하였고, 이정남(2003)은 사진교환의사소통을 통해 자발적 요구하기 행동의 증가를 제시하였다. 윤치연(1999)은 기능분석을 통한 문제행동감소 효과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무발화 자폐성 아동들은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의사소통 형태의 습득은 아동의 의사소통 형태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가 아닌 포괄적인 화용적인 상황에서 보다 진보된 의사소통 형태로의 변화를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의사소통 형태로의 변화와 함께 구어의 직접 중재 없이 구어 사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무발화 자폐성 아동들에게 의사소통 욕구를 촉진할 수 있는 화용적 상황을 통해 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을 습득시킴으로써 의사소통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동을 감소시키고 더욱 발달된 단계의 구어의 사용을 증가시킴으로서 아동들의 의사소통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장수균, 박미혜, 박재국, 안성우, 강창욱, 김수진, 박선희, 황보명, 강은희, 박은실, 손은남(2005). **아동언어장애이해**. 대구: 한국언어치료학회.
- 김승국, 김옥기(1995). **사회성숙도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영태(1997). 언어장애의 화용론적 접근 방법에 관한 고찰. **인간발달연구**, 25, 115-135.
- 김영태, 김경희, 윤혜련, 김화수(2003). **영·유아언어발달검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태련, 박랑규(1992). **이화-자폐아동 행동발달평가도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태련, 박랑규(1996).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윤치연 (1999). **기능분석을 통한 의사소통훈련이 행동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남 (2003). **사진교환 의사소통체계를 적용한 의사소통 중재가 자폐 장애 유아의 자발적 의사표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2005). **자폐아동의 하기-보기-듣기 그리고 말하기: 자폐아동의 사회성과 의사소통 중재**.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효신(1999). 자폐성 유아의 관심공유능력과 언어발달. **정서·학습장애연구**, 15(2), 205-224.
- 홍강의, 정보인, 이상복(1999). **자폐아동의 조기발견과 치료적 개입: 부모용 컴퓨터 학습교재 개발과 실용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HMP-98-M-1- 1081, 최종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 Bondy, A. S., & Frost, L. A. (2001). *A Picture's Worth: PECS and Other Visual Communication Strategies in Autism*. MA.: Woodbine House.
- Mundy, P., Sigman, M., & Kasari, C. (1994). Joint attention, developmental level and symptom presentation in autism.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389-401.

- Siegel-Causey, E., & Bahnski, S. (1997). Enhancing initial communication and responsiveness of learners with multiple disabilities: A tri-focus framework for partners.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2*(2), 105-120.
- Wetherby, A. M., & Prizant, B. M. (1989). The expression of communicative intent, Assessment issues.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10*, 77-91.
- Wetherby, A. M., & Prizant, B. M. (1996). *Autism Spectrum Disorder: New Service Delivery Models for Nonverbal Young Children*. MD: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The effects of nonverbal autistic children's communication forms change by a structured pragmatics communication approach

Kang, Eun-Hee

Daegu University

Park, Sun-Hee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structured pragmatics communication approach to the nonverbal autistic children and to see the changes of the children's communicative forms. The subjects were 3 children with autism, aged 4 to 6, their language ability barely reached that of 24 month old children.

This study got the following results after applying the structured pragmatics communication approach. First, at the baseline, children's communicative forms were delayed and deviated because of aberrant communicative behaviors. After the approach, children's aberrant communicative behaviors decreased. Second, children's communicative forms, at the baseline, were lack of colloquial languages. After the approach, children's colloquial languages increas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acquiring appropriate communicative behaviors by the approach results in changes of not only targeted behaviors but also general communicative forms.

With these results in mind, it can be said that the structured pragmatics communication approach helped the nonverbal autistic children change. Therefore, it can be summarized that the structured pragmatics communication approach is useful for the positive changes of autistic children's communicative forms.

key words: pragmatics, nonverbal autistic children, aberrant communication behaviors, speech

논문 접수: 2007. 11. 5 심사 시작: 2007. 11. 9 게재 확정: 2007. 12. 17

<부록 1>

중재 프로그램의 예

주제	1. 간식	
준비물	동물모형 과자, 동그란 쌀과자, 물, 컵, 각 과자 사진카드, 물 사진카드	
의사소통 기능	활동	촉진자
사물요구하기	① 아동이 손이 닿지 않지만, 잘 보이는 곳에 간식을 두어 요구하도록 한다. 반응이 없으면, 치료사가 간식을 조금 먹어 보이거나, 일부분을 맛보도록 한다. => 아동이 해당 사진카드를 제시하면, 즉시 그 사물을 제공하며, “○○ 여기 있어”라고 언어적 강화를 준다. 이때 아동은 치료사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간식을 받는다. ② 아동이 간식을 소량 제공하여 재요구하도록 하고, 반응이 없을 때는 “더 먹을래?”라고 묻는다. => 아동이 해당 사진카드를 제시하면, 즉시 그 사물을 제공하며, “ 더, ○○ 더 먹고 싶었구나.”라고 언어적 강화를 준다.	5초 동안 기다린 후 아동이 사진교환을 사용하지 못하면, 아동의 손을 잡고 해당 사물카드를 잡고 치료사에게 제시하도록 도와주며, “○○주세요.”라고 한다.
행동요구하기	① 아동이 보이는 곳에서 빈 통에 간식을 넣고 뚜껑을 잠근 후 아동에게 준다. 아동은 열어달라는 도움을 치료사에게 요구하도록 한다. => 아동이 과자가 들어있는 통을 치료사에게 내밀면, 즉시 뚜껑을 열면서 “뚜껑 열어줄게.”라고 말한다.	신체언어를 하도록 도와주며, “열어주세요”라고 한다.
거절하기	① 싫어하는 야채를 제시하며, 먹어보라고 한다. => 아동이 손 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싫어), 신체언어 하며, 치료사는 즉시 싫어하는 간식을 제거해 준다.	손 또는 고개를 흔들도록 도와주며, “싫어”라고 한다.
언급하기	① 과자 상자를 보여주며 치료사와 같이 바라본다. “과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2~3회 반복한다. => 아동 스스로 과자 상자를 가리킨다. 치료사는 “그래, 과자구나”하고 다시 한 번 언급해 준다.	촉진자가 아동의 손을 잡고 과자 상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과자”라고 말한다.
정보제공하기	① 간식과 다른 사물 카드 두 장을 제시하여 “어느 것을 할래?”라고 묻고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한다. => 아동이 선택한 사물을 제공한다. 만약 아동이 다른 사물을 잘못 선택하여도 해당 사물을 제공한 후, 다시 선택하도록 한다.	한 개의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동의 손을 잡고, 보조하며 선택 후, “○○주세요.”라고 한다.
관심끌기	① 간식을 아동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치료사는 잠시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척한다. => 아동이 치료사의 가까이에서 가서 치료사의 신체 부분을 두드리면 치료사는 즉시 돌아보며 “○○야 선생님 불렀어?”라고 반응하며 아동의 요구를 들어준다.	아동의 손을 잡고 치료사의 신체를 톡톡 두드리며 “선생님”하고 부른다.
인사하기	① 동물모형 과자를 들고 “안녕”하고 인사한 후, 아동에게 제시한다. => 동물모형 과자를 꺼내며, “안녕”하고 손을 흔든다. 아동도 따라 손을 흔든다.	아동의 손을 흔들도록 하며, “안녕” 한다.
유의사항	* 촉진자는 아동의 뒤에 앉아 있다가 환경적 및 언어적 의사소통 촉진 상황에서 아동의 반응을 5초 정도 기다린 후, 반응이 없거나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나타내면 아동의 손을 잡고 사진카드 선택 또는 목표 신체언어 만들도록 도와준다. 신체적인 개입은 아동의 수준에 적절하게 촉진 수준을 정한다.	

<부록 2>

의사소통 행동 평가지

No. 아동명: 평가일: 평가자:

번호	상황	말하거나 행동한 것	부적절한 의사소통행동				구어	
			자해	울기	짜증내 기	기타	한 단어	두 단어 이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기타: 아동들이 의사소통 행동으로서 자해, 울기, 짜증내기 이외의 뛰기, 상동행동, 특이행동 등으로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